

# 행정전산망 사흘만에 복구... 오점 남긴 '디지털 정부'

### 민원서비스포털사이트 '정부 24' 연간 1200만명 이용 UN 등서 세계 최고 수준 평가 했는데...행안부 "재발 방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울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하지만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간 이어지면서 그간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게 됐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은 2019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전자 정부의 시작인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인종 장애로 잦아들면서 동 주민센터 등 전국의 민원 현장은 증명서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국민 불편 현상이 됐다. 연간 1200만명이 사용하는 '정부24'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포털사이트 기능을 해왔으나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들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울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

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내일 월요일(20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20일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다·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7일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민원실 입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민주, 총선 인재 영입 옥석 가리기

### 국민 추천 786명 1차 검증...1호 영입, 과학기술·경제 분야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돌입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위원회는 국민이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옥석을 가리는 중이다.

지난 17일까지 총 786명의 인재가 추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등이 1호 영입 인재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AI(인공지능), 지구환경,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화두로 총선을 지르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눈앞의 경제 문제를 해

결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당의 역량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1호 영입 인재로 영입에 두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대비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후보군 중 일부와는 이미 물밑에서 접촉해 입당 의사 등을 타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선불리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가 해당 인사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 등이 논란이 될 경우 당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증에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인재위 내부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캠프의 1호 영입 인재로 발탁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조동연 씨 등이 반면교사의 사례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지역 국회의원들 본격 총선 모드

### 의정 보고회로 주민과 소통...출판기념회 통해 '세물어' 나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말 의정활동 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회 등이 금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의정활동 보고회는 총선을 앞둔 만큼 의원들이 임기인 4년간 활동을 거둔 입법 성과와 활동 등을 한층욱으로 담아 지역민들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광주 동남구)·송갑석(광주 서구)·조오섭(광주 북구)·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우선 이병훈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방림초등학교, 동구문화센터에서 각각 의정활동 보고회를 연다. 이 의원은 이번 보고회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정활동 성과만을 내세우지 않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회 동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성과와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의정보고활동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의원은 다음달 16일 광주 동신고 체육관에서 대규모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연 뒤 내년 1월까지 17개 동 순회 의정보고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형석 의원과 송갑석 의원은 다음달부터 각 동별로 의정 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동시에 열고 세물어에 나선 현역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2층에서 '탈당의 정치-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용민 의원과 최광준 전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대한검국'(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정치가 민생을 지키는 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용빈(광주 광산구) 의원은 지난 18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저서 '이용빈의 1.5℃ 정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용빈의 1.5℃ 정치'는 기후위기에서 검찰개혁까지 그간의 정치활동과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이어 다음달부터 의정보고회도 열 예정이다. 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구) 의원도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연 이어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광주시당 '총선공약개발단' 발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4 총선공약개발단 발대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과 총선공약개발단, 선출직 공직자·핵심 당원 등이 참석했다.

총선공약개발단은 ▲민생을 살피고 돌보는 복지정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정책 ▲노동·주거·일자리 등 민생 안심정책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완화해 함께 잘 사는 정책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희망과 기회정책 등

광주시민과 당원의 삶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총선공약개발단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고물가 속에 광주시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의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무대책·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